

“어린이 사시 조기발견이 평생 시력 좌우”

2-3세 어린이 진단 필요...발병 땐 시각 기능장애 유발 “교정·안경착용 등 치료법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마 양 래
보라안과병원 원장

시력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소아시기에 눈이 잘 발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평생 시력이 좌우되기도 하고, 시력장애로 인해 학습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사시여부를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라안과병원 마양래 원장의 도움으로 어린이 사시 조기발견과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사시란

사시란 두 눈이 똑바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어떤 물체를 주시할 때, 한쪽 눈의 시선은 그 물체를 향해 있지만 다른 눈은 그렇지 못한 경우다. 이러한 사시는 어린이 100명 중 2-3명에서 나타나며, 시력이나 입체시 같은 시각적 기능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막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큰 물체 정도를 알아보는 정도의 시력이지만, 이후 계속 발달하게 되어 만 6세면 정상 성인 시력 1.0에 이르게 되는데, 사시는 어린이의 시력발달을 저해하고, 두 눈에 들어온 물체의 상을 입체적인 하나의 물체로 인식하게 되는 융합력을 상실케 하는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또 시선이 똑바로

지 않은 미용적인 문제들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와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시의 원인과 증상

사시는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외안근)이상, 신경마비 등의 뇌이상, 양쪽 눈 시력이 차이 나는 찌꺼기인 경우, 선천성 백내장, 각막혼탁, 망막이상 등으로 약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유전적 성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흔한 간헐성 외사시는 대부분 2-3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평소 증상이 없다가 피곤하거나 아플 때,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 등 짧은 시간 동안 눈이 돌아간다. 고개를 돌려서 보거나, 햇빛에 과민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자녀들이 시력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 소아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외안근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 사시가 발생하는데, 줄다리기를 하다가 한 쪽 힘이 더 세지면 그쪽으로 끌려가듯이 힘이 더 센 외안근의 작용방향으로 눈이 돌아가게 된다. 눈이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안쪽으로 물리낸 내사시, 바깥쪽과 귀쪽으로 돌아가면 외사시, 위쪽이나 아래로 돌아가면 각각 상사시, 하사시라고 한다.

◇조기발견과 치료의 중요성

시력 기능은 생후 3-4개월부터 발달하기 시작해 만 10세가 되면 완성되는데,



보라안과병원 마양래 원장은 시력발달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소아시기에 평생 시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조기에 사시여부를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에 시 기능 및 시력 발달이 사시 등의 질환들에 의해 쉽게 방해를 받아 약시를 초래하고 입체시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현재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하의 소아는 수술 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미용 목적으로 분

류돼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없는 만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부모는 아이들이 ▲생후 3개월이 지나도 엄마와 눈을 못 마주칠 때 ▲한쪽 눈을 가리면 심하게 보채거나 짜증날 때 ▲잘 걷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부딪힐 때 ▲TV나 책을 아주 가까이 볼 때 ▲눈

을 자주 찌푸린다가나 비비거나 깜박일 때 ▲특별한 원인 없이 집중 못하고 산만할 때 ▲정면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눈동자가 똑바로 좌우대칭이 안 될 때 ▲가쪽 중 시력이상이나 안과질환이 있을 때 ▲햇빛에 매우 눈부셔 하거나, 강한 빛에도 눈을 깜박거리지 않을 경우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사시의 치료법

사시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각각의 환자를 위한 가장 알맞은 치료 방법을 안과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사시와 약시가 동반된 경우, 약시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시력 발달을 도모할 수 있고 사시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시력이 좋아진 후 사시 수술을 해야 수술의 결과가 좋다. 약시 치료 방법은, 시력이 좋은 쪽 눈을 안대로 가려 사물을 볼 때 시력이 나쁜 쪽 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약시인 눈의 시력을 발달시켜주는 ‘가림치료’가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때로 안경이 사시를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조절 내사시의 경우 안경착용으로 내사시와 원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다.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사이의 불균형 때문에 사시가 발생하므로 외안근을 뒤쪽으로 밀어주어 힘을 약하게 하거나(후전술), 외안근을 앞으로 당겨서 강하게 해(절제술) 힘의 균형을 맞추어 줌으로써 사시를 교정한다.

영아 내사시, 간헐 외사시, 항상 외사시 등의 경우 수술을 받아야 한다.

아이들의 신체이상은 부모의 세심한 관찰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사시는 부모가 관심을 갖고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시력 발달시기인 3세 이후에 년 2회 정도 소아안과 전문의를 찾아 안과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정리=오복기자

조선대병원, 광주·전남 최초 ‘단일공 로봇 담낭절제술’ 시행

흉터·통증·출혈 줄이고 회복 앞당겨

조선대병원은 16일 “간담체외과 신민호 교수가 최근 광주·전남 최초로 ‘단일공 로봇 담낭절제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로봇수술이란 환부에 몇개의 작은 구멍만 난 뒤 로봇팔을 삽입하고 집도의가 콘솔장치에 앉아 로봇 팔을 원격 조정하면서 진행되는 수술 시스템이다.

단일공 로봇 담낭절제술은 배꼽에 2cm 내외로 1개의 구멍만 뚫고 하나의 투관침

을 넣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복강경 담낭절제술에 비해 수술 절개 부위가 작아 흉터가 거의 없어 미용적인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출혈 및 수술 후 통증이 적고, 빠른 회복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복강경 수술에 비해 10배 이상의 고배율로 3차원 확대 영상의 수술 시야를 제공하며 손 떨림이 자동으로 보정되면서 정확하고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하여 정상 조직 혈관 신경 등의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하다.

이번 수술을 집도한 신민호 교수는 “최신형 4세대 다빈치 Xi 로봇을 이용해 단 하나의 구멍만으로 더욱 안전하고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었다”며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에 개소한 조선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고난이도 수술 경험이 많은 우수한 실력을 갖춘 각 진료과 교수들과 로봇수술전담간호사, 로봇수술 상담 코디네이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오복기자



“비타민D, 우울증 완화 효과”

비타민D 보충제가 우울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핀란드 동부 대학 임상의학 연구소의 투오마스 미콜라 교수 연구팀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발표된 비타민D-우울증 관

련 임상시험 41건(무작위 대조군 설정)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의학 뉴스 포털 뉴스 메디컬 라이프 사이언스(News Medical Life Science)가 15일 보도했다.

전체 임상시험에서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이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증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비타민D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중추신경계의 교란은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 임상시험 결과는 참가자의 인구 이질성(population heterogeneity)과 편향성(bias) 위험이 있어 증거의

확실성이 낮다고 연구팀은 인정했다. 따라서 추가 연구를 통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의 식품영양학 전문지 ‘식품영양학 비평’(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코로나 재유행 속 감기약 가격 인상 잇따라

광동제약 ‘쌍화탕’ 10-20% 올라...판피린 10월 인상 예고

코로나19 재유행 속 주요 감기약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쌍화탕, 판피린 등의 가격 인상이 확정된 가운데 대원제약도 짜 먹는 감기약 ‘콜대원’의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한방 감기약으로 쓰이는 자양강장제 ‘쌍화탕’의 약국 공급가를 이달 12%가량 올렸다.

광동제약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부담 등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쌍화탕의 가격 인상을 검토해오다가 이달 인상한 것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한약재 등 원료 가격이 올라 (쌍화탕)가격을 올리기로 했다”며 “(가격 인상은) 2019년 이후 3년만”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사가 공급가를 올리면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약국은 약사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곳이며

서, 소비자가 약국에서 지불하는 일반의약품 가격은 약국별로 다르다.

대원제약 역시 짜 먹는 형태의 감기약 콜대원의 가격 인상을 내부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콜대원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감기약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대규모로 확산하던 당시 일부 약국에서 품절 사태를 겪기도 했다.

당시 대원제약은 콜대원 생산량을 크게 늘리며 대응한 바 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의 마시는 감기약 ‘판피린’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동아제약은 오는 10월 판피린의 약국 공급가를 12.5% 올릴 예정이다. 2017년 9월 이후 5년 2개월 만의 가격 인상이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천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사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